

2017년,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2017년,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 3.0은 2016년 16년째 인천문화재단, 2017년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 3.0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인천문화재단에 바란다.



김상원(인하대학교 교수, 인천문화재단 7기 이사)

문화시민은 문화도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문화시민은 문화로 행복하고, 운택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시민일 것 같다. 문화정책이 있다고 모두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조건으로서의 문화정책의 중심에 인천문화재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이 추론이 인천의 현실이 되기를 그리고 그 미래의 첫발이 2017년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의 한 획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현(아산프론티어 유스 인턴)

인천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고, 듣고 즐기며 2016년 한 해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어느 때보다 알찬 양질의 공연과 전시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폭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순임(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

세계 어디든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는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의 가치인식이 있다 할수 있으며, 마켓과 자본의 거대물결에서 독립적으로 버티는 다양한 자산을 가졌으며, 동시에 그렇지 못한 도시의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재단의 급변하는 지원방향에 눈치 보는 문화행사나, 지원증명이나 기간에 의해 위축되거나 한계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인천의 문화를 주도하려고 할 때 그 한계가 극대화되고, 문화는 관이 주도하려할 때 그 창조적 새로움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창의적 씨앗의 태동과 생존을 위해 문화재단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양성과 인천의 특수성, 자연스러운 태동과 생명력을 위해, 문화재단이 좀 더 깊이있게, 인천 문화의 변화와 생존을 관찰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장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문화융성과 문화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영(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인천문화통신을 통해 그동안 문화가 척박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인천의 새로운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단편적인 인천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천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로 읽을 거리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인천 문화예술 동아리 탐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소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017년에는 인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현상, 숨어 있는 문화 활동가 등 좀 더 폭 넓은 이야기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문화통신이 인천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연(2016 인천왠츠 참가자)

일단 인천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어서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만, 재단 내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은 채널을 통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여하여 주변에 알리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천 내 대학교들이나 기관들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천 왠츠를 통해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인천문화재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정민(청소년인문학도서관 느루 청년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인천여성영화제 교육기획자)

정책으로, 지원으로, 행정 서류로 만나는 인천문화재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는 인천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삶을 위해 예술가와 시민들의 옆에서 한발씩 함께 걸음을 내딛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겨운 이웃 같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계봉(시인, 인천문화재단 7기 이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인천문화재단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인천문화발전의 플랫폼과 허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문화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합리적 핵심과 폐기해야 할 적폐들을 냉정하게 변별하는 뼈아픈 성찰의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과 예술(가), 그리고 인천의 문화생태계가 아울러 상생,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신운섭(예술가)

‘國民’이 되기 싫은데 자꾸만 ‘國民’으로 불려지고, 세금은 고박 떼이는데 이놈의 ‘國家’는 맹탕이다 못해 개판이고..... 예술강사제도 10여년. 예술가와 학생들의 만남, 지역 시민들과의 만남, 반복적인 일상을 환기 시켜주고, 때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도 했던 시간들.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절대적인 경제활동이기도 했던. 이놈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한 예술강사제도, 예술 강사 5천여 명 붕 뚝! 뚝! 아 하느님이며 조물한번 해주세요.



신지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개항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색이 혼재된 인천만의 매력이 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퇴색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책, 수반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고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우수한 콘텐츠 배양을 통해 문화자존감을 잃지 않길...



오지현(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올해 5월에 첫 걸음을 댄 인천문화통신3.0을 통해 인천문화재단의 활동과 인천 곳곳의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알찬 선물을 한 달에 두 번 받는 것 같았다. 올해처럼 인천문화재단 주최 하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인천을 중심으로 많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가 있는데, 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생겨 인천의 문화예술활성화가 더욱 증진되었으면 한다. 한해 동안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현주(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새로운 대표이사를 맞아 인천의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산업 저변이 확대되는데 기여하는 재단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탁월한 능력을 조직을 위하여 이김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탄탄한 조직을 위하여 묵은 제도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관형(미추홀문화회관 관장, 인천문화재단 7기 이사)

2016년 10월 열린 인천문화주간 선포식에서 인천광역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주간계획을 통해 문화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인천문화예술의 중심축인 인천문화재단은 많은 성과를 이뤄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 부재와 소수에 의해 문화가 권력화 됐다는 굵지 않은 비판의 시선도 있었다. 그렇기에 새롭게 출범한 제 5대 대표이사와 임원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인천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계와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재단의 직제 개편과 개혁을 통해 현안적인 여러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문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해지는 ‘300만 문화성시 인천’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 본다.



이상욱(노래동아리 '민아리' 회장)

사실 개인적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바라다라고 할 점은 없는 것 같다. 특정하게 무언가가 아쉽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순 없지만, 우리와 같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가 조금 더 시민과 많이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생겼으면 좋겠다. 인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서 문화예술동아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입장에서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다.



유세웅(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2017년의 인천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천문화재단이 그러했듯, 앞으로도 지역 문화 예술과 이를 향유하는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로서의 든든한 힘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신뢰,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리고 중진과 원로 예술가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활동을 가능케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2017년은 더욱 더 예술가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며,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유정현(인천고등학교 학생)

저는 한국근대문학관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인천문화재단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근대문학관 토요문화학교 <청소년이 만드는 문학잡지'습적시대 2.0> 프로그램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명 깊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작가라는 꿈을 지망하고 처음으로 시도한 활동이었고 저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했던 자신과 나의 글에 대한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에 바라는 것을 말하자면 책의 도시 인천답게 책에 관련된 행사가 많아지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원(인천대학교 학생)

서울 중심의 문화 인프라에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인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문화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더 풍부한 문화를 즐기도록 하기 위한 인천문화재단의 노력은 2017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인천 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을 기대합니다.



진나래(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정한 문화융성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질되어간 모습을 보게 된 한 해였습니다. 2017년, 인천의 문화와 문화재단은 권력이나 검열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하며, 재단의 직원들이,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풍부한 이야기들이 더욱더 가시화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광일(한국방정환문화재단 전문위원)

동안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는 담론적 공유와 사업의 경험을 통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반을 닦고 구성원들이 사업을 추동하는 예지와 의지를 기대해봅니다.



차하나(문화예술기부캠페인 '아트레인' 기부자)

2017년에는 좀 더 쿨한 인천문화재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류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의미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해주세요. 너무 지역, 지역 하다가 재단이 고루하고 폐쇄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재단 직원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를 믿습니다. 파이팅!



청산별곡(기획자)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다. 올 한해는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어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보다 더 폭넓게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문화가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챙겨 입어야 하는 옷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관객이 아닌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이 그 중심에서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바란다. 무니만 문화도시가 아닌, 제대로 옷을 갖춰 입은 성숙한 문화도시를 기대한다.